

KIEP動向分析速報

제01-04호 / 2001년 4월 25일 발간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主要內容

- 미주 34개 국가들은 지난 4월 20~22일 캐나다의 퀘벡에서 개최된 제3차 미주정상회담에서 2005년 1월까지 FTAA 협상을 종결짓고 2005년 12월부터 협정을 발효키로 합의함에 따라 FTAA 출범이 가시화될 전망임.
 - FTAA 출범은 인구 8억 명, 총 GDP 12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형성을 의미함.
 - 특히 FTAA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 멕시코와 같은 신흥공업국, 중남미 저개발국들 간의 통합체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역내 국간 산업·교역상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미주지역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28.7%를 소화하는 시장으로 FTAA 출범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바, FTAA 출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FTAA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역흑자시장인 중남미지역에 대한 수출은 10~12%(금액으로 7억 달러) 감소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FTAA 출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 강화 ▲ 중간재 위주로 수출구조 개선 ▲ 대중남미 투자진출 확대 등의 다각적인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 미주지역 34개 국가 정상들은 지난 4월 20~22일 캐나다의 퀘벡에서 개최된 제3차 미주정상회담에서 2005년 1월까지 FTAA 협상을 모두 종결짓고 2005년 12월부터 동 협상을 발효키로 합의하였음.
- FTAA의 체결은 인구 8억명, GDP 12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을 의미함.

<표 1> FTAA 회원국들의 경제규모 (2000년 기준)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1인당 GDP (달러)	수출 ¹⁾ (십억 달러)	수입 ²⁾ (십억 달러)
주 요 회 원 국	미국	275.7	9,965.7	36,148	684.4	1,029.9
	캐나다	30.8	701.1	22,750	242.7	220.0
	멕시코	99.0	577.6	5,833	136.4	142.0
	브라질	166.2	606.4	3,640	48.0	49.2
	아르헨티나	37.0	283.7	7,662	23.3	24.1
	칠레	15.2	73.0	4,788	15.6	14.0
34개국 전체		809.1	12,698.6	-	1,194.0 ³⁾	1,511.3 ⁴⁾

주 1) 1999년 기준.

2) 중미 및 카리브 연안국 제외.

자료: Standard&Poor's DRI, First Quarter 2001, *The World Outlook*.

- 미주지역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28.7%를 소화하는 수출시장으로, 만약 FTAA가 출범할 경우,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A 출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FTAA의 추진 배경 및 경과

가. FTAA의 추진 배경

- FTAA의 추진은 지난 1990년 6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외채경감, 무역증대, 투자확대, 환경문제를 포괄할 '범미주자유무역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음.

-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항에서 칠레 남단의 띠에라 델 푸에고에 걸치는 전미주 대륙을 자유무역지대화할 것을 제의하였는바, 당시 동 EAI는 개발도상권인 중남미와의 전면적 자유무역 실현이라는 획기적인 구상이었음.
- 이후 1994년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정상회담(the Summit of the Americas)에서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34개 국가들은 2005년까지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를 설립키로 합의하였는바, 이들 국가들이 FTAA를 추진키로 합의한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미국의 경우에 FTAA를 통해 자국업체들이 중남미 시장에서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한편으론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지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양국간 및 북수국 간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면서 미국도 지역무역블럭의 확산으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수출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FTAA 타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됨.
- 특히 최근 EU가 칠레, 멕시코 및 브라질 등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 및 투자 협정들을 추진함으로써 중남미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감에 따라, 미국은 중남미 지역에서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FTAA를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함.
-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도 FTAA 체결을 통해 거대한 북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유리해지면 자국의 수출이 촉진되고 추가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발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나. FTAA의 추진 경과

- FTAA는 지난 1994년 12월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정상회담 (the Summit of the Americas)에서 구체화되었는바, 동 정상회담에서 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34개 국가들은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설립 키로 합의하였음.
- 마이애미 정상회담 이후 1998년 제2차 미주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4차례에 걸쳐 무역장관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고, 1998년 4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음.
 - 동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의 무역차관(the Vice Ministers of Trade)들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를 구성키로 합의하였으며 9개 협상그룹(Negotiating Group)을 설치하였는바, 동 협상그룹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시장접근(과세, 비관세,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표준, 무역기술장벽(TBT)), 농업, 자재권, 보조금·반덤핑·상계관세, 경쟁정책 및 분쟁해결 등임.
 - 이외에도 소규모 경제국의 문제, 민간부문(civil society) 및 전자상거래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3개 '비협상 특별위원회(non-negotiation special committees)'를 설치함.
- 1999년 11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5차 무역장관회의에서는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무역원활화패키지(Business Facilitation Package)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
- 2001년 4월 7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6차 무역장관회의에서는 FTAA 협상을 2005년 1월까지 모두 종료하고 2005년 12월에 FTAA를 정식 출범키로 합의하였고, 이를 제3차 정상회의에 제출, 정상들이 합의함.

<표 2> FTAA 주요 협상 일지

시기	회의명	개최장소
1994. 12. 9-11	제1차 미주정상회의	미국, 마이애미
1995. 6. 30	제1차 미주무역장관회의	미국, 덴버
1995. 7. 1-2	제1차 미주비즈니스포럼	미국, 덴버
1996. 3. 18-20	제2차 미주비즈니스포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1996. 3. 21	제2차 미주무역장관회의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1996. 9. 16-17	제1차 미주무역차관회의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1997. 2. 25-27	제2차 미주무역차관회의	브라질, 레시페
1997. 4.	제3차 미주무역차관회의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1997. 5. 13-15	제3차 미주 미즈니스포럼	브라질 벨루오리종찌
1997. 5. 16	제3차 미주무역장관회의	브라질, 벨루오리종찌
1997. 7. 29-31	제4차 미주무역차관회의	코스타리카, 산호세
1997. 10. 28-30	제5차 미주무역차관회의	코스타리카, 산호세
1998. 2. 10-12	제6차 미주무역차관회의	코스타리카, 산호세
1998. 3. 16-18	제4차 미주비즈니스포럼	코스타리카, 산호세
1998. 3. 19	제4차 미주무역장관회의	코스타리카, 산호세
1998. 4. 19	제2차 미주정상회의	칠레, 산티아고
1999. 11. 3-4	제5차 미주무역장관회의	캐나다, 토토
2000. 4. 7	제6차 미주무역장관회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00. 4. 20-22	제3차 미주정상회의	캐나다, 퀘벡

자료: Chronology of the FTAA Process[Online]. Available: http://www.ftaa-alca.org/alca_e.asp

3. 제3차 미주정상회담의 주요내용

- 미주 34개국 정상들은 캐나다의 퀘벡에서 개최된 제3차 미주정상회담에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2005년까지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동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 선언서(Declaration)와 행동강령(Plan of Action)에 나타난 FTAA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미주 정상들은 FTAA 협상을 늦어도 2005년 1월까지 마무리 짓고 2005년 12월 이내에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함.
 - 상품교역, 서비스, 정부조달 및 투자 등의 시장접근 협상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준비작업을 2002년 4월 1일 이내에 완료키로 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품 및 분야별(product- and sector-specific) 시장접근 협상을 늦어도 2002년 5월 15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합의함.

- 또한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4개 공식 언어로 FTAA 잠정 협정문을 공개하고 협상 과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일반 대중에 공개키로 함.
 - 이외에도 역내 각국의 국내 대화 메커니즘과 적절한 FTAA 메커니즘 등을 통해 민간부문이 FTAA 협상과정의 진전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유지키로 함.
- 한편, 모든 역내 국가들이 FTAA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의 발전정도 및 경제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키로 함.
 - 미주통합 진행과정에서 역내의 소규모 경제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역내국들이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이를 경제소국들의 capacity building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 이외에도 3자위원회(Tripartite Committee) 기관들로 하여금 FTAA 기구로부터의 기술적 지원 요청시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함. 특히 소규모 경제국들이 FTAA 통합 과정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함.

4. 제3차 미주정상회담 평가 및 FTAA 출범 전망

가. 미주정상회담 평가

- 제3차 미주정상회담에서는 2005년 1월까지 FTAA 협상을 종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제2차 산티아고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FTAA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팽배해 있던 FTAA 출범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

- 당초 미국이 의도한 2003년까지 FTAA 협상의 조기 완결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회원국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제2차 미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5년 말까지 협상 완료 시한을 2005년 1월까지로 앞당기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국내 FTAA 비준절차상의 이유로 2005년 말까지 FTAA 실행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의 향방이 주목됨.
- 특히 금번 미주정상회담에서는 FTAA 협상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NGO(노동계 및 환경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FTAA 협정문 초안을 공개키로 함에 따라 FTAA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금번 제3차 미주정상회담 선언문에는 그간 미국이 주장해온 노동 및 환경문제가 FTAA 협상시 고려되어야 할 경제·사회적 협의의제로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반영되었음.
- 그러나 FTAA협상의 주요 쟁점분야인 농업정책의 범위에 관한 문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의 현격한 의견을 보였음.
- 미국은 수출보조금 및 국내보조와 같은 비관세 규정들은 FTAA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WTO 협상에서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MERCOSUR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관세인하와 동시에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미국은 자국의 최대 경쟁국인 EU와 협상이 가능한 WTO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를 희망함.
 -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해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규범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브라질측의 주장과, 무역구제조치들의 투명성과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들을 개발하는 선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미국측의 주장이 대립되었음.

나. FTAA 출범의 주요 변수

- FTAA 협상이 예정대로 2005년 1월까지 종료되기 위해서는 ▲ 미국의 FTAA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 FTAA 협상 양대 주축국인 브라질의 입장 변화 ▲ 중남미지역의 거시경제적 안정 ▲ EU-MERCOSUR간의 협상 진전 ▲ 남미자유무역지대 조기 결성 ▲ WTO 차기라운드협상의 진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미국의 FTAA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 향후 FTAA협상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금년말까지로 약속한 신속처리협상권을 의회로부터 조기에 획득하여, 미국 정부의 FTAA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함.
 - 향후 미국 정부의 신속처리협상권 의회 획득 전망은 어느때보다 밝은 편임.
- 신정부의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FTAA 협상 신속 추진을 표방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이 비록 同數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신속처리협상권의 의회 표결 획득도 클린턴 정부 시기보다는 비교적 쉬울 전망임.
- FTAA 협상 양대 주축국인 MERCOSUR의 입장 변화
 -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MERCOSUR는 회원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주도의 신속한 FTAA 협상에 반대해오고 있으며 그간 FTAA 협상에서는 이러한 MERCOSUR의 입장이 상당 정도 반영되어 왔음.
 - MERCOSUR는 이러한 입장 강화를 위해 내연적 심화 및 외연적 확장을 도모 해왔음.
- 그러나 MERCOSUR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많은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MERCOSUR 통합 심화는 자국의 경제위기는 물론

론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로 구심점을 잃고 있으며, 2000년 예정인 남미자유무역지대 결성도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2002년으로 연기된 상태임.

○ EU와의 FTA 협상도 EU내의 농업문제로 2003년부터나 본격화될 전망임.

- 이와 같은 MERCOSUR의 위상 약화는 FTAA 협상에 대한 점진적 접근을 주장해오고 있는 MERCOSUR의 입장도 약화될 전망이어서 미국 주도의 신속한 FTAA 협상이 보다 힘을 갖게 될 전망임.

□ 중남미지역의 거시경제적 안정

- 1994년 말 멕시코 폐소화 위기에 이어 1998~99년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전염 효과에 따른 중남미시장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이 FTAA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는 바,

○ 향후 중남미지역의 경제개혁 공고화에 기초한 거시경제적 안정 달성을 여부가 FTAA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임.

□ EU와 MERCOSUR의 FTA 협상 진행 결과

- 양자간의 FTA 협상은 2003년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나 EU가 對중남미 진출 강화 전략으로 이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어 향후 同 협상진척 사항이 FTAA 협상 속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남미자유무역지대의 조기 결성여부

- 예정대로 남미자유무역지대가 2002년 출범할 경우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 국가들의 협상력이 크게 제고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과 향후 FTAA협상에서 이견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그러나 현재 남미자유무역지대 주축세력인 MERCOSUR이 주도력을 상실하고 있는데다 부시 행정부의 향후 대외정책여부에 따라 MERCOSUR 회원국들은

물론 안데스공동체 회원국들의 대외정책 우선 순위가 쉽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남미자유무역지대 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WTO 차기 라운드협상의 진전 여부

- WTO 차기 라운드가 회원국간의 이견조정을 통해 금년 말 이후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는 다자주의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주의 정신의 퇴조는 물론 미주지역 국가들이 WTO협상에 전념함에 따른 FTAA에 대한 관심 저하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다. FTAA 출범 전망

□ 위에서 논의한 FTAA 출범의 변수를 중심으로 향후 FTAA 출범을 다음의 3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 볼 수 있음.

□ 시나리오 1: 미국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FTAA 협상 신속 추진 → 2005년 FTAA 출범

- 부시 행정부가 신속처리협상권을 연내에 의회로부터 신속히 획득하는 등 FTAA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협상 양대 주축세력인 MERCOSUR 가 협상에 능동적으로 임할 경우, FTAA 협상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차기 WTO 협상이 부진해지고, EU가 남미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미국은 FTAA 타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전망임.
- 그러나 FTAA 협상은 34개국에 이르는 회원국 수는 물론 회원국간의 커다란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이질성, 협상의제의 다양함 등으로 예정된 시한에 종결짓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협상 주축세력인 MERCOSUR가 주요 협상의제에서 미국과의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역내 제조업기반의 상실을 우려하여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신속한 협상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시나리오 2: 짐진적인 미주자유무역지대 추진 → NAFTA 확대

-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정대로 FTAA 협상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현재 미국 정부가 FTAA 협상에 중남미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별국가 및 소지역통합체와의 FTA를 통한 짐진적인 미주자유무역지대(NAFTA Plus) 실현이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대두될 전망임.
- 현재 미국 정부는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칠레와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 2001년 시효가 만료되는 안데스지역 국가들에 대한 무역특혜법(ATPA)을 확대·연장하여 안데스지역을 NAFTA 경제권에 실질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중미공동시장(CACM) 국가들과도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특히 MERCOSUR 회원국 중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 접근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NAFTA 확대를 통한 미주자유무역지대 결성 가능성은 더욱 높음.

□ 시나리오 3: 미국의 FTAA 협상 주도권 상실 → NAFTA와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의 대립 → FTAA 협상 장기화

- 미국이 노동 및 환경계의 반대로 연내에 신속처리협상권을 의회에서 획득하지 못하고 칠레와의 FTA 협상이 지연될 경우, FTAA 협상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심점을 잃고 보다 장기화될 전망임.
- 이 경우 현재 MERCOSUR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미 10개국을 포함하는 남미자유무역지대가 보다 공고화될 전망이어서 미주지역은 장기간 NAFTA와 SAFTA의 공존 형태로 남을 전망임.

5. FTAA 출범이 역내국 및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가. 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FTAA가 달성될 경우, 이는 인구 8억 명, 12조 달러의 GDP를 가진 세계 최

대의 단일시장의 형성을 의미하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 멕시코와 같은 신흥공업국, 중남미의 저개발국들간의 통합체로서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미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바,

- FTAA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의 對중남미 무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임. 또한 경쟁의 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임.

<표 3> 미국의 對중남미 수출¹⁾ 및 투자 비중(1999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통합체	대중남미 총수출		대중남미 직접투자	
	금액	비중 (총수출대비)	금액 (1999년까지 누계)	비중 (총직접투자 대비)
안데스공동체(CAN)	14,731	1.64	14,717	1.30
중미공동시장(CACM)	8,181	0.91	3,044	0.27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4,473	0.50	6,093	0.54
남미공동시장(MERCOSUR)	27,008	3.01	50,033	4.4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60,790	29.08	145,972	12.89
기타	9,941	1.11	44,267	3.91
중남미	158,260	17.65	152,419	13.46
FTAA	325,125	36.25	264,126	23.32
전세계	896,854	100.00	1,132,622	100.00

주: 1)서비스 수출 포함.

자료: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Report to the Chairman,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Negotiations at Key Juncture on Eve of April Meetings," March 2001, pp. 21-22에서 재인용.

□ 중남미 지역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은 가운데, 회원국간 자유무역이 실현될 경우 역내무역이 큰 폭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의 수출비중이 높으면서 관세율이 높은 MERCOSUR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수출 증가 가능성성이 높음.

<표 4> 중남미 주요국 평균관세율(%) 현황

국가	기준연도	양허관세	실행관세	국 가	기준연도	양허관세	실행관세
아르헨티나	1999	35	13.5	베네수엘라	1999	39	13.0
브라질	1999	32	14.3	칠레	1999	25	9.8
파라과이	1999	35	11.4	멕시코	1999	35	16.2
우루과이	1999	31	12.0	코스타리카	1999	44	7.2
볼리비아	1999	40	10.0	엘살바도르	1998	38	5.6
콜롬비아	1999	52	11.6	도미니카공	1994	40	20
페루	1999	32	13.7	평균		37	12.2

자료: CEPAL, *Panorama de la inserción internacion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1999-2000*, LC/G.2085-P, Marzo de 2001.

- 일반균형모형(CGE)으로 FTAA하의 무역자유화가 미국과 남미 국가간 교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여 보면, 미국은 MERCOSUR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수출과 수입을 각각 26%와 5.6%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MERCOSUR를 제외한 남미국가들은 대미 수입과 수출을 각각 18.8%와 11.6%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교역증가의 상당부분은 역내국간 무역창출이 되겠으나, 기존 역외국과의 교역을 역내국으로 전환시킨 무역전환의 영향도 클 것으로 보여 역외국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임.

<표 5> FTAA의 미국-남미간 교역에 대한 영향(%)

	미국의 수출	미국의 수입
MERCOSUR	26.0	5.9
기타 남미국가	18.8	11.6

- 한편, FTAA하의 역내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역내외 기업들의 대역내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관련 역내 교역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나. 한국의 대미주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FTA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들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은 중남미 개도국들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로 내몰릴 것으로 보이며, 중남미 시장에서는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중화학제품에 있어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불리한 시장접근을 감수해야 할 것임.
-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 등 역내 선진국들은 이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중남미 국가들은 여전히 보호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중남미 시장에서의 차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임(표 4 참조).
- 더욱이 한국의 수출구조가 과거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류, 완구, 가발 등) 위주의 선진국 시장 타겟에서, 최근에는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중화학 공업 제품(수송기계, 직물, 통신기기, 컴퓨터, 전자부품, 화공 등) 위주로 전환되고, 선진국 및 개도국 시장에서 주로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남미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됨.

<표 6> 한국의 對중남미 10대 수출 품목 구성

(백만 달러, %)

순위	1997년			2000년		
	품 목	금 액	구성비	품 목	금 액	구성비
1	선박	1,817	21.0	선박	1,553	16.6
2	자동차	1,513	17.5	자동차	1,147	12.2
3	인조장섬유직물	598	6.9	편직물	518	5.5
4	가정용기기	411	4.7	무선통신기기	517	5.5
5	편직물	321	3.7	인조장섬유직물	517	5.5
6	전자관 및 부분품	273	3.1	전자관 및 부분품	489	5.2
7	타이어 및 튜브	265	3.1	석유화학제품	413	4.4
8	영상기기	263	3.0	가정용기기	391	4.2
9	기타 전자부품	251	2.9	컴퓨터	367	3.9
10	컴퓨터	199	2.3	타이어 및 튜브	250	2.7
소계		5,911	68.2		6,162	65.7

주: 구성비는 對중남미 수출에서 차지는 품목별비중

자료: KOTIS

□ 비록 FTTAA하의 무역자유화가 점진적으로 달성되더라도 우리나라의 對남미 지역 수출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FTTAA는 우리나라의 對남미 지역 수출을 10~12%(수출감소액은 7억 달러에 해당함)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지역에 대한 수출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이를 MERCOSUR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중화학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무역전환이 더 큰 폭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표 7> FTTAA가 한국의 對남미 지역 수출에 대한 영향

	MERCOSUR	기타 남미국가
수출변동률 (%)	-12.00	-9.9
수출변동금액 (백만 달러)	281	413

□ 한편,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對북미 지역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비슷한 크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먼저 부정적인 요인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있어 비회원국으로서의 불리한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출감소와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관세 부여로 인한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들 수 있음.
- 긍정적인 요인은 미국 등 북미지역 국가들의 對남미 수출증가로 인해 중간재 수입을 늘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중간재의 對북미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임.

□ 과거 NAFTA하의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역내 개도국(주로 남미지역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6. 한국의 대응방안

- FTAA 출범에 대비하여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은 1) 지역주의에의 적극 참여, 2) 중간재 위주로 수출구조 개선 및 3) 對중남미 투자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먼저, 우리나라도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중국, ASEAN 등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함.
 - 또한 최근들어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통합, 동아시아(ASEAN+3) 경제통합 등 동아시아내 지역통합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과 미주대륙에 단일시장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적 경제협력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한편으로는 미주 지역에 몇몇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칠레와의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이를 인근 국가에 확대하고, 가능하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상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북미 지역보다 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세율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으나, 이외에도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완제품보다는 중간 투입재의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완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입수요가 많은 중간재의 수출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역블럭화하에서 교역장벽을 해피하는 방안으로 현지투자의 확대를 들 수 있음. FTAA가 미주의 34개국을 포함하므로 해외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이 높으므로 우리기업들은 FTAA의 발전추이를 참고하여 현지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해외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야 함.
- 마지막으로, WTO와 같은 다자체제협상에 의해서든 FTA와 같은 양국 및 복수국간 협정에 의해서든지 간에 앞으로全산업의 개방화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요망됨.
- 따라서 우리의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보완대책 마련에 정책적 고려가 요구됨.

※ 내용문의: 정인교 【세계지역연구센타 FTA 연구팀장, ☎3460-1208】
권기수 【미주팀 전문연구원, kskwon@kiep.go.kr】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khyi@kiep.go.kr】